

“전북불교 희망의 씨 뿌리는데 힘모으자”

대중공사 ‘붓다로 살자와 전북불교’ 금산사서 열려

전북지역 불교의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중공사가 열렸다.

자성교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와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11월 9일 전북불교회관 2층 강의실에서 ‘금산사 교구 대중공사- 붓다로 살자와 전북불교’를 개최했다.

도법스님과 성우 스님, 결사총괄본부장 덕산스님을 비롯해 17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을 비롯한 신행단체 관계자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금산사 포교국장 지월 스님, 김성권 전북불교청년회장, 이상봉 결사추진본부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지월 스님은 ‘전북불교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불교의 현황을 통계를 분석하고 포교정책의 부재, 도심 포교당 개설 및 포교인력 발굴, 신행 프로그램의 개발, 포교인프라 부족 해결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지월 스님이 발표한 전북지역 종교인구 분포에 따르면 불교는 1985년 8.1%(179,019명)에서 2005년 12.8%(227,364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동안 가톨릭은 1985년 3.5%(77,426명)에서 11.4%(202,918명)으로, 원불교는 1.3%(28,352명)에서 2.3%(41,596명)으로 늘었다.

현황 짚는 지역 대중공사로 첫 개최 영유아·청소년 포교 미흡 드러나 보육 지원, 어린이법회 활성화 제시

특히 9세 이하 종교에서 개신교가 29.4%로 불교의 6.4%에 큰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지월 스님은 이와 같은 지역불교 현실을 감안해 전북지역의 대중공사는 의미가 크다고 진단하고 어린이 법회 활성화, 불교계 보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 전북 불교의 미래가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 지월 스님은 ‘전북불교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불교의 현황을 통계로 분석 신행 프로그램의 개발, 포교인프라 부족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성권 전북불교청년회장은 ‘불교의 지역사회 역할’, 이상봉 결사추진본부 사무국장은 ‘왜 붓다로 살자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에서 스님들과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포교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롯해 포교정책에 대한 의견, 해결방안 등 다양한 입장이 개진됐다.

성우 스님은 “취임 후 교구의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포교 노력에 다소 아쉬운점이 있다”고 평가하며 “이른 시일 내 포교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포교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교구별로 이러한 대중공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전북지역의 금산사, 선운사 양본사가 전북의 희망을 위한 100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스님은 “전국에서 처음 개최한 이번 대중공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양사 단풍축제 및 가사불사 회향법회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에서 단풍축제와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병행했다. 행사는 11월 7일 백양사 가사불사회향법회에 이어 8일 광주MBC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특별전시회로 방장 지선스님의 ‘오백나한전’으로 이어졌다.



가든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가사불사회향법회에서는 백양사 본·말사 대중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상단불공, 가사점안사, 가사이운, 퇴수(착복식), 법문이 진행됐다. 율주 혜권 스님은 법문을 통해 “가사란 출가 수행하는 스님들을 상징하는 법복으로 경전에 의하면 무상복전(無上福田)이라고 한다”며 “오늘 가사불사에 동참한 모든 신도분들이 이와같은 복전으로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 그리고 깨달음으로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현숙, 추가열, 오승근, 박규원, 박강수, 금잔디 등이 출연했다. 또 별도행사로 방장 지선 스님이 10여 개 국가에서 수집한 달마석과 사유석 등을 수석 550여 점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성흥사, 대응전 상량식 봉행

군산 성흥사는 11월 12일 군산시 성산면에 새롭게 마련한 약 8,200㎡의 대지에 들어설 대응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한편, 성흥사는 앞으로 시민선방 건립, 종가 등의 불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서부지역의 전법 중심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량식에는 논산 안심정사 주지 법안 스님, 진안 탐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신도 200여명이 동참했다. 송월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응전 건립불사에 동참해준 불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성흥사를 군산지역의 대표적인 전법도량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 형태로 건립될 성흥사 대응전은 내년 3월까지 공사와 도량 정비를 마치고 낙성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직장 내 다문화 차별, 한국말로 풀어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생활이나 사업장에서 언어소통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한국말하기를 보다 이해하기 위한 대회가 열렸다.

불교계 기관인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11월 9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 화가정 근로자 여성이 함께 하는 ‘제1회 외국인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네팔,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9개국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본선에는 20명이 진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말하기 주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경험담, 재미있는 사연, 직장 생활이야기에 대한 3가지로 3분 이내 발표

표로 진행됐다. 시상은 캄보디아에서 온 산빛이 대상 수상 부상으로 노트북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상에는 여성근로자인 태국 썩송 계수, 우수상에는 네팔 업니스와 인도네시아 운통, 네팔 뉴파네씨가 수상했다. 그의 참가상으로 15명이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산빛은 캄보디아와 한국의 생활에 대해 “프롬펜의 사학브러티바카 대학교 출신이며 한국에서 레깅스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캄보디아로 언젠가 돌아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초대 손님으로 인도네시아 보컬그룹 ‘모기’와 해프는복지센터 다문화어린이가 난타, 네팔·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기타공연 등이 펼쳐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 진안 4대종단 지도자 이웃돕기 나서



전북 진안지역의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대종단 지도자들과 자원봉사센터, 사회봉사 단체들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김장을 담그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 약 3,000kg을 담갔다.

미얀 탐사(주지 진성)와 나누우리 자원봉사단 20여명은 11월 10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 동참해 관내 30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나누우리 탐사 봉사단들이 한데 모여서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동참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

웃들이 용기를 잃지말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숙 나누우리 총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대종단이 함께 모여서 김장을 담그는데 너무 보람있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미얀 탐사는 이날 약 3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30세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또 이와 별도로 각 세대별로 자비의 쌀 40kg을 전달했다.

한편 김장김치 담그기에 앞서 이날 진안군청에서 열린 자원봉사대회에서 탐사 주지 진성 스님은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는 종교를 초월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례 화엄사, 벼수매현장 자원봉사활동

스님들이 추수를 맞아 수고하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영관)는 11월 5일과 13일 쌀 수매 현장에서 구례군 농민회와 함께 나락기마니를 옮기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화엄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구례군농민회와 통일쌀 공동경작,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위안잔치 등의 다양한 봉

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0월 27일 통일쌀 공동경작 벼베기에 동참해 경작에 참여한 화엄사는 노령화된 농촌 어르신들이 벼 수매시 나락 가마니를 옮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구례군 농민회와 공동으로 산동면 벼 수매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한신앙 융성지 증심사 오백나한대제

조선시대 나한신앙의 융성지로 꼽히는 무등산에서 ‘오백나한대제’가 봉행됐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는 11월 10일 오백나한전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오백나한대제’를 봉행했다. 무등산에는 증심사를 비롯한 화순만 연사 등에 다양한 나한신앙 관련 문화재들이 많다. 이날 대제가 열린 나한전(광주시 유형문화재 13호)은 1443년 김방에 의해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09

년 복원한 것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에 속한다. 특히 한국전쟁 때 사찰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오백나한전만은 화마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연광 스님은 법문에서 “나한신앙의 현대적 해석은 나눔의 실천이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자비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나한신앙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흥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고고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